

# 진도군, 제10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성료

### 4개 단체 공동 주최...약 700여명 참석 소통·화합 도모

### “농업인 위한 다양한 사업 통해 잘사는 농촌위해 노력”

진도군이 제10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회장 김말자), 한국농촌지도자진도군연합회(회장 강남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진도군연합회(회장 박일수), 한국4-H진도군연합회(회장 김요한)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회원 약 700여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4개 단체의 1년간의 성과영상 시청, 유공자 시상, 축사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 다짐을 위한 결의문 낭독, 4개 단체 인제

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성과 전시와 단체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노래자랑, 체육행사도 준비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다. ‘땅에서 희망을! 농업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삶의 터전인 농촌에서 최선을 다하는 농업인들께 감사하다”며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잘사는 농촌, 활기찬 농업을



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신청하세요”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농지 등도 가능

해남군은 11월 24일까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신청을 받는다.

군은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벼 경영안정 대책 사업비 57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0.1~2ha까지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농지와 벼 재배농가 감축 협약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타시군 경작 농지 조화와 신청농지 경작 사실 확인 등을 거친 후 1ha당 지급 단가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경영안정 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을 통해 쌀값 하락과 농가제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보훈회관 개관, 8개 보훈단체 새 보금자리 입주

장흥군 보훈 가족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장흥군 보훈회관’이 13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2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공사에 돌입한 장흥군 보훈회관은 토지매입, 건축비, 비품 구입 등 약 46억원이 투입됐다.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상 3층, 옥상정원이 조성된 연면적 979.43㎡ 규모로 지어졌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후 총 8개 지역 보훈단체들이 10월에 입주 완료하였다.

보훈회관 1~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휴게실, 소회의실, 3층은 대회의실로 건축되었다.

현대적 느낌의 깔끔한 디자인과 태극문양으로 포인트를 준 외관은 나라사랑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고품 회원들의 이용을 돕기 위한 승강기, 주차장 등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에게 복지증진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장흥군, 빈대 확산 대응 합동대책반 운영

### 군 산하 8개부서로 구성...다중이용시설 등 173개 지정 사전점검

장흥군은 최근 일부지역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다수 피해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빈대 확산 대응 합동 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 산하 8개부서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다중이용시설 등 173개소를 지정, 숙박업소 등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목욕탕 등 감염취약시설은 자율점검

과 선제적 방역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인체 흡혈시 수면방해, 가려움증,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한다.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가정에서의 빈대 대응방법은 스팀 또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오염된 직물류는 건조기를 이용하고, 빈대 서식처는 약국 등에서 구

입한 살충제를 살포해야 된다. 만약,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되었다면, 여행용품에 대해서는 위 방법으로도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빈대신고 및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빈대 상담 및 전문 업체를 안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연계 직접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군, 책 읽는 지자체·보길 윤선도 작은 도서관 ‘대상’ 동시 수상 겹경사

완도군이 지난 9일 열린 「제8회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책 읽는 지자체’ 부문 대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보길도의 윤선도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부문에서 대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는 「제8회 2023년 책 읽는 대한민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 개최와 더불어 도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 동아리 활동과 희망 도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 힘썼다.

특히 작은 도서관 부문 수상은 처음으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을 자유롭게



만나 즐길 수 있는 친화적 문화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지역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독서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고 주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14년 신지 햇살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1읍면 1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빛날 수험생 여러분을 강진군이 응원합니다”

### 강진원 강진군수,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응원

강진원 강진군수가 13일, 강진고를 찾아 올해 수능을 보는 3학년 학생 120여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자신이 꿈꾼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생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군에서는

항상 응원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은 강진 관내에서 19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